

# 광주·전남 지방선거 “압승 vs 돌풍”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초단체장 경선을 끝으로 광주·전남지역 6·13 지방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되면서 민주당이 압승할 지, 야당과 무소속 약진이 이뤄질 지, 4선 단체장이 탄생할 지 등이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현역 생존율과 투표율도 관심사다.

◇민주당 “압승 자신”, 야당·무소속 “쉽지 않을 걸”

민주당이 6·13 본선거에 내세울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는 모두 29명. 광주는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임택(동구), 서대석(서구), 김병내(남구), 문인(북구), 김삼호(광산구) 후보를 본선에 올렸다.

전남은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를 포함해 김종식(목포), 권세도(여수), 허석(순천), 강인규(나주), 김재무(광양), 최형식(담양), 윤시석(장성), 유근기(곡성), 김순호(구례), 공영민(고흥), 김철우(보성), 구충권(화순), 박병동(장흥), 이승욱(강진), 신우철(완도), 이길은(해남), 이종진(진도), 진동평(영암), 정영덕(무안), 김준성(영광), 김성도(함평), 천경배(신안) 후보가 22개 시·군의 야당 대표로 출전한다.

민주당은 치열한 경선을 거쳐 경쟁력이 검증된 만큼 본선에서 야당과 무소속이 압승을 거둬 지난 총선에서 빼앗긴 텃밭 돌풍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광역단체장 2곳 모두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70~80%를 쓸어 담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그러나 이에 맞선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면면이 만만찮아 민주당 ‘싸늘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용호상박 가능성이 높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차부도 민주당으로선 극복해야 할 과제다.

광주에서는 동, 서, 북, 광산구에서 혈투가 예상된다. 동구는 5개구 중 유일하게 3당 대결 구도가 완성된 가운데 유일한 현역인 평화당 김성환 정장과 ‘동구 토박이’ 바른미래당 김영우 전 광주시 의원의 과반되는 승부가 예상된다.

현역 프리미엄이나, 여당의 저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조직 포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싸늘이” 야당·무소속 “쉽지 않을 걸”  
‘마의 4선’ 단체장 첫 배출·현직 생존율 관심  
야당 고지지를울·개헌 무산·투표율 등 영향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7일까지(11일간) 제20회 함평나비 대축제장에서 전국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구는 ‘음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민주당 검증에서 컷오프된 임우진 정장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 ‘임우진 돌풍’이 불지, 여당 프리미엄에 표가 쏠릴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서 후보의 과거 ‘음주 3회 벌금형 전력이 최대 변수’다.

북구는 관료 출신인 문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평화당 이은방 후보와의 한판 승부다. 특히, 북구에는 평화당 소속으로 인지도가 높은 김경진 최경환 국회의원이 지원 사격에 나서 판세를 예단하기 어렵다.

광산구는 컷오프 재심과 상대 진영의 4자 후보 단일화 등 우려 폭질 끝에 김삼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본선에 진출하면서, 오랜 기간 비타민심을 흠어온 3선 농협조합장 출신 평화당 이정현 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의 예측불허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김 전 행정관의 불구속 기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전남은 평화당의 공세가 더욱 매섭다. 14개 시·군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박지원 의원의 영향력이 만만찮은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약진이 예상된다.

목포 박홍률, 해남 명현관, 진도 장일, 고흥 송계근, 구례 박인환, 강진 광영체 후보 등이 풍부한 정치 경륜과 인지도 조직력을 앞세워 바람몰이를 자신하고 있다.

광양과 장성에서는 정현복 현 시장과 유두석 장성군수가 탄탄히 쌓아온 아성을 바탕으로 무소속 승리를 버리고 있다. 구례 전경태, 보성 하승완, 신안 박우량·임흥빈 후보도 민주당 후보와의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제2회 지방선거 이후 매년 6~7명의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시킨 바 있다.

◇4선 단체장 첫 배출(?), 현직 생존율은

광주·전남 최초로 4선(選) 기초단체장이 탄생할 지도 관심이 다. 광주는 대상자가 없고, 전남은 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와 최형식 담양군수 후보가 마의 4선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민선 3·4·5기 완도군수로, 내리 3차례 기초단체장을 역임한 뒤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거쳐 이번에 4번째 기초단체장에 도전장을 냈다. 김 전 부시장은 평화당 박홍률 현 시장과의 한판 승

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 군수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제39대 담양군수로 당선됐으나 2006년 재선에 실패한 뒤 2010년(41대), 2014(42대)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군수에 당선됐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4선에 도전했으나 당내 검증에서 컷오프되면서 무산됐다.

정치적 피로감이나 세인몰에 대한 갈등 등이 3, 4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전남에서 3선 단체장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포함, 모두 10명이다. 박 지사는 개도 이래 최초 3선 도지사로 기록됐다.

맞물려 현직 생존율도 관전포인트로, 광역단체장은 광주와 전남 모두 바뀌고, 기초단체장은 광주의 경우 동구, 서구가 여당의 벽을 넘어서고 수성할 지가 관건이고, 전남은 13곳의 불갈이가 확정됐다. 경선 패배와 3선 연임 제한, 광역단체장 도전, 비리 연루 등으로 불갈이 폭이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야당 고지지를울-개헌 무산, 투표율 영향 미치나

2014년 각각 57.1%와 65.6%를 기록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보다 상승했던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 유지될 지, 하락할 지도 관심이 다.

민주당 지지율이 고평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광역단체장 후보단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투표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던 개헌 투표마저 무산되면서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도 적잖다.

무분별한 당원 모집과 경선 과정에서 온갖 잡음과 반발, 민주당 오만에 대한 실망감 등도 투표율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6년 제1회 64.8%, 제2회 41.5%, 제3회 42.4%, 제4회 46.3%, 제5회 49.8%, 제6회 57.1%, 전남은 제1회 76.1%, 제2회 68.2%, 제3회 65.6%, 제4회·제5회 각각 64.3%, 제6회 65.6%다.

뉴스스

## 이용섭 “어등산 개발, 시민과 상생방안 찾아야”

6·13 지방선거이용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8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관광단지 IC와 광동포사격장에서 민주당 광산구청장, 광역의원, 구의원 후보, 주민대표 등과 함께 어등산관광단지를 돌아보고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현장 민원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광주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며 “그동안 10여 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던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재개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이라는 방향에 맞게 중소상인의 피해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광주시의 재정부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소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상철 어등산해제대책위 총무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어등산관광단지 조속한 사업 착수 ▲인근 마을과 상생시스템 구축 ▲SOC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수질 오염 등 피해 해결 등을 건의했다.

## 문재인 대통령, 출범 1년 맞아

### “자만 빠지지 않도록 초심지키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문재인 정부의 취임 1년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



“춧발 여망 빌들어 달려온 1년”  
“출발 날 각오 다짐 새롭게 하자”  
“인수위 없이 모두 노고 많아”

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다들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헤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발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

뉴스스

## 허석 민주 순천시시장 예비후보 “어르신이 편한 순천”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시장 예비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이 편한 순천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중동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허 후보는 “숙식과 여가생활이 가능한 고품격 실버타운을 건립해 100세 시대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은퇴한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분야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은퇴자들의 경험과 능력이 쉽게 사장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방치하면 정신적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

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세대의 정서적 방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도와 버스 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버스정류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치매와 노인요양원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요양 안심서비스도 시행한다.

허 후보는 “무료 치매검사를 시행하고 민간요양시설의 인증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요양보조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